

『제국신문』의 한글 활용과 독자 전략^{*} – 미공개 자료의 현상모집을 중심으로

권두연^{**}

1. 논의의 성격
2. 한글 활용 양상과 현상모집
3. 한글로 낸 문제, <말모듬>
4. 한글 시 짓기, <국문풍월>
5. 결론

국문요약

『제국신문』은 창간사에서 순국문 즉 한글 전용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 한글 독자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펼쳤는데 현상모집은 그 가운데 하나이다. 이 연구는 『제국신문』의 한글 활용과 독자 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현상모집에 주목했다. 독자투고와 달리 현상모집은 사측의 입장과 독자의 반응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체 연구에 유용한 관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제국신문』이 실시한 현상모집은 <말모듬>과 <국문풍월> 두 가지로, 전자는 한글 낱글자로 문제를 내고 이를 맞히는 일종의 퀴즈이고 후자는 한글로 된 시를 짓는 작시다. 이들은 1907~8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글을 활용했다는 공통점이 확인된다. 현상모집에 대한 독자들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2A02927292).

** 한세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의 호응 역시 상당했는데 특히 10대와 여성 독자들의 참여가 활발했음이 밝혀졌다. 이 점은 현상모집이 여성 외에도 한글을 구사하는 10대의 독자들을 유인하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방증한다.

요컨대 현상모집은 『제국신문』이 순국문 사용이라는 매체의 지향성을 보다 대중적으로 확장한 장치로, 창간사에서 밝힌 한글 독자를 향한 언어 실천인 동시에 당시 『대한매일신보』 국문판을 비롯한 다양한 한글 매체들과 경쟁하기 위해 고인한 독자 전략 가운데 하나였다. 이 점은 독자들의 한글 활용에 대한 이해를 높였을 뿐 아니라 상당한 독자들의 호응과 참여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현상문제의 난이도나 현상문예의 작시 수준이 사측의 기대나 요구에 미치지 못했고 계속된 경영난으로 지속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

(주제어: 제국신문, 한글, 국문, 독자, 현상모집, 말모듬, 국문풍월, 매체어)

1. 논의의 성격

한글은 근대 초기 『독립신문』에서부터 매체 언어로 등장해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국문판 등의 일간지와 『협성회보』, 『그리스도신보』, 『경향신문』과 같은 기독교 매체, 『경남일보』와 같은 지방지 등지에서 사용되었다.¹⁾ 뿐만 아니라 근대 초기 부인 잡지나 어린이 및 학생을

1) 이 연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1890-1910년에는 국문, 순국문, 언문, 정음 등 우리 문자를 가리키는 다양한 표현이 공존했고 한글이라는 표현 자체는 사용되지 않았다. 한글은 1910년대 이후 주시경을 위시하여 국문에 대한 이념을 공유한 이들에 의해 가능해진 용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한글은 그 역사성과 무관하게 우리 문자를 가리키는 명칭으로 사용함을 밝혀 둔다. 이복규, 「훈민정음·한글·국문·한국어(국어) 이들의 혼동 문제에 대하여」, 『동방학』 12집, 2006, 155-189쪽; 홍종선, 「근대 전환기 개화 지식인의 '국문/언문'에 대한 인식과 구어체 글의 형

대상으로 한 매체들에서 한글의 사용 빈도와 활용은 보다 빈번해지고 다양해졌으며 이에 관한 연구 성과들도 상당히 축적되었다. 그러다보니 매체에 실린 한글 기사, 특히 그 가운데 한글 소설에 관한 연구는 상당 할 정도에 이르렀다.²⁾

그런데 매체 언어로서 한글의 활용 양상이나 한글 독자를 위한 독자 전략 등에 대해서는 그다지 면밀하게 접근되지 않았다. 한글을 활용한 한글 기사는 주로 육아와 가정, 여성 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아니면 기서나 별보와 같이 독자투고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크다. 특히 양식적 측면에서 국문 시가나 소설을 제외하면 한글 활용의 구체적 사례를 다루거나 이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많지 않다.

『제국신문』의 현상모집에 주목한 이 연구는 한글을 매체 언어로 표방한 『제국신문』의 한글 활용과 독자 전략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제국신문』은 1898년 8월 10일에 창간되어 『황성신문』과 함께 근대 초기 가장 오랜 기간 발행된 일간지이다. 물론 근대 초기 부인과 하층민을 대상으로 한글로 발행되어 ‘암신문’으로도 알려져 있지만 이는 김영희와 김복순이 지적했듯 대중신문이 지향한 기능 중 일부에 불과하다.³⁾ 『제국신문』에 여성 관련 기사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소외되어

성, 『우리어문연구』 54집, 2016, 589-620쪽 참조.

2) 매체를 중심으로 한 소설 연구는 개별 성과를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축적되어기에 대표적인 단행본만을 언급하는 것으로 대신함을 양해 바란다. 김영민·구장률·이유미 편, 『근대계몽기 단행 서사문학 자료전집 상하』, 소명, 2003 및 『한국의 근대 신문과 근대소설』 1·2, 소명, 2006·2008; 김영민, 『근대적 문학제도의 탄생과 근대문학 지형도의 변화(1)－집보 및 소설란의 정착 과정』, 『사이』 5호, 2008; 한기형, 『근대어의 형성과 매체의 언어전략』, 『역사비평』 71호, 2005 및 한기형 외, 『근대어·근대매체·근대문학』, 성균관대출판부, 2006 참조.

3) 김영희, 『이종일의 언론관과 데국신문의 성격에 관한 일고찰』, 『인석박유봉박사화갑 기념논총』, 전예원, 1999, 399-423쪽; 김복순, 『『제국신문』 학문론의 실학적 변용과 학지의 타당성』, 『여성문학연구』 31호, 2014, 6-44쪽 참조.

있었던 계층인 여성들을 향한 것이지 여성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순한 글 전용으로 국권회복과 민중의 지식계발을 민중적 차원으로 표현하려고 했다”⁴⁾는 김영희의 주장처럼 아동, 백정, 서북 등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과 계급, 지역을 두루 포섭하고자 했던 『제국신문』의 지향이 순한글을 전용했다고 암시문으로 규정되는 것은 온당치 않다. 더욱이 최근 미공개 자료들이 소개되면서 이러한 주장은 훨씬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 김복순에 의하면 『제국신문』이 다양한 학문론을 게재하면서 민중 계몽에 앞장섰고 “국문을 통한 대중문화의 저변 확대와 사회적 포섭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매체”로 간주되기 때문이다.⁵⁾

이 연구에서 『제국신문』이 한글을 활용하여 대중문화의 저변을 확대해 갔음을 현상모집을 통해 살펴보려는 이유는 두 가지에서다. 『제국신문』은 근대 초기 한글 독자를 향해 발행된 대표적인 신문으로 한글 독자를 위해 다양한 글쓰기를 시도하였고 이에 대한 연구 역시 상당히 진행되었지만 현상모집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주목된 바 없다. 현상모집과 관련한 기사들은 영인되지 않은 미공개 자료에 포함되어 있어 지금까지 다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다.⁶⁾ 이 연구에서 미공개 자료에 포함된 현상모집의 전모를 소개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한글 전용을 표방한 『제국신문』이 한글을 활용하여 독자들에게 접근해 간 구체적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현상모집은 이를 실시하는 신문사측의 입장과 응모에 응하는 독자의 반응, 두 가지를 모두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독자투고의 경우 독자들이 직접 글을 보내온다는 점에서 적극적이면서도 직접적인

4) 김영희, 「이종일의 언론관과 데국신문의 성격에 관한 일고찰」, 『인석박유봉박사화갑 기념논총』, 전예원, 1999, 420쪽.

5) 김복순, 「발간사」, 『제국신문과 근대－매체 · 담론 · 감성』, 현실문화, 2014, 7-8쪽.

6) 『제국신문』의 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제국신문 미공개 논설 자료집』의 해제에 잘 정리되어 있다. 강현조, 「해제」, 『제국신문 미공개 논설 자료집 1907.5.17-1909.2.28』, 현실문화, 2014, 12-13쪽.

반응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독자투고가 일부 독자들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보도 위주로 취사선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반해 현상모집은 사측의 기대에 부응 혹은 이와 상반된 반응을 모두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⁷⁾ 그러니까 현상모집을 통해 신문사가 펼친 정책이나 제도가 독자들에게 어떻게 호응을 얻었거나 외면당했는지를 실감의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 반응의 또 다른 측면을 기대할 수 있다.

2. 한글 활용 양상과 현상모집

『제국신문』은 창간사에서 한글 사용의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황양 폐하의 지극호신 공덕을 찬양하며 우리 신민의 무궁히 경축하는
뜻을 낫하 늬노라 그러나 그동안에 국중에 신문이 여러히 성기여 혹 날마다
발간도하며 혹 간일하여 늬이기도 하며 혹 일주일 동안에 혼두번식 늬
이기도 훗눈되 그중에 영어신문이 훗나히오 국한문으로 석거 늬이는 거
시 훗나히오 일어로 석거 늬이는 것도 잇스되 그중에 국문으로 늬이눈 거
시 데일 긴요흔 줄노 맛는 고로 우리도 쪼흔 순국문으로 박일터인티 론설
과 관보와 잡보와 외국 통신과 면보와 광고등 여러가지를 늬여 학문상에
유조흘만흔 말이며 시국에 진격흔 소문을 드러 등지흐려는바 본샤 쥬의

7) 이 연구에서 주목한 현상모집은 그간 이루어진 『제국신문』 독자에 관한 선행 연구에 힘입은 바 크다. 참조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정경, 「『제국신문』 독자투고에 나타난 사회인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이경하, 「『제국신문』 여성독자투고에 나타난 근대계몽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8권, 2007, 67-98쪽; 김윤선, 「『제국신문』에 나타난 미국 유학과 유학생 기서(편지) 연구」, 『어문연구』 38권 1호, 2010, 309-333쪽; 장영숙, 「대한제국기 일반 독자층의 『제국신문』 광고게재와 사회상의 일면」, 『중앙사론』 35집, 2012, 323-359쪽; 전은경, 「근대계몽기 문학과 독자의 발견」, 역락 2009.

인즉 신문을 아모도록 널니 전파하여 국가 기명에 만분지 일이라도 도움
이 될가하여 특별히 갑을 간략히 마련하고 날마다 신실히 전하여 보시는
이들의게 극히 편리토록 쥬의하오니 수방 첨군주는 만히 스다들 보시기
를 깁히 부라오⁸⁾ (밑줄 강조-인용자)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당시 영어, 일어, 국한문 등 다양한 문자언어로 신문들이 발행되고 있었고 그 중 국문으로 내는 것이 가장 긴요한 까닭에 “순국문”을 택했다고 언어 선택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처럼 『제국신문』은 당시 신문들의 매체 환경과 언어 상황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비교적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순국문 신문임을 천명했어도 『제국신문』에 사용된 문자가 100% 한글로 구현된 것은 아니었다. 가령 신문의 제호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순한글인 ‘제국신문’을 사용하다 한자인 ‘帝國新聞’으로 역행하였다. 이뿐 아니라 한글 전용이라 하더라도 기사의 제목은 모두 한문으로 쓰다가 논설에서부터 순한글 제목이 점차 적용되더니 1908년에 가서야 비로소 순한글 제목에 ()로 한자를 병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양상은 광고에서도 드러난다. 동일한 광고가 처음에는 국한문으로 이루어지다 국한문과 순한글 광고가 한 지면에 동시에 게재되는 등, 신문이 애초 지향했던 문자, 즉 언어 정책의 방향이 논설에서부터 광고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적용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이다. 요컨대 한글 전용이라 하더라도 그 실행의 수준이나 펼쳐진 양상은 동일하지 않다.

한글을 가리키는 문자에 대한 명칭 역시 국문, 순국문, 정음, 언문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창간사에서처럼 국문과 순국문(순국문)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가장 많으며 국문 정음(정음)으로 지칭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래 인용문과 같이 언문으로 소개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8) 「사고」, 『제국신문』, 1898.8.10, 창간호 1면.

- ▲여보 이반분세월 놀아셔는 못쓰나니 언문호번 일거보겟소
- ▲우리 이천만동포들은 콩무든글리라고 흥보지말고 귀를 기우려 들어
들 주시오
- ▲가갸거겨 가보경장 빙흔령척 거진성취 되겟더니
- ▲나냐너녀 나라흥망 불고흐는 너의멋놈 싱겨나셔
- ▲다댜더뎌 다된죽에 코를치져 더망흐게 되엿세라
- ▲라랴러려 락심천만 우리 국민 비러밧게 못먹겟네
- ▲마마머며 마음들을 단체하야 면져흘일 싱각흐오
- ▲바뱌벼벼 바다밧게 강도들이 법률정치 붉게흐야
- ▲사샤서서 사람사는 세계중에 선진즈가 되엿나니
- ▲아야어여 아라사와 일본쌈에 어리석은 우리들은
- ▲자쟈저져 잠을시키지 못하고서 쟈압제를 당했고나
- ▲차챠처쳐 차즈보세 우리국권 철련지흔 이뿐이니
- ▲카캬커켜 칼날갓흔 이너창즈 쿠빗흐니 씰는피라
- ▲타탸티텨 타국인을 원망말고 터진물을 막으라면
- ▲파파피피 팔을 붓석러더치고 펄펄뛰게 싱그니여
- ▲하하허혀 학문에 다 힘을쓰면 허다 업다흐리라⁹⁾

언문을 “콩무든글”이라 흥보지 말고 귀를 기울여 달라는 호소로 시작하는 잡보이다. 44조의 가사처럼 네 글자씩 운을 맞춰 리듬감을 살리면서 당대 세태를 풍자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가보경장” 앞에 ㄱ으로 시작하는 “가갸거겨”를, “나라흥망” 앞에 ㄴ으로 시작되는 “나냐너녀”로 ㄱ에서부터 ㅎ까지 해당 자음으로 시작하는 낱말을 사용하여 가다나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14개의 낱글자를 순서대로 쓰고 있다. 굳이 없어도 될, 불필요해 보이기까지 한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는 이유는 기사 작성에 한글을 더 적극적으로 구사하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다시

9) 「朗讀一聲」, 『제국신문』, 1907.7.31, 3면 잡보.

말해 한글이 기사의 풍자적 내용을 표현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한글로 된 의성어나 의태어 표현을 사용한다든가, 반복되는 동일한 어미를 사용하는 등 일정한 패턴을 활용한 잡보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¹⁰⁾

웃둑웃둑 돌아셨는 친구 거 무엇슬 구경들흐시오 나도 좀 봅시다
 붉웃붉웃 혼 죄히올이를 여괴여괴 먹여달고 시계 우산이며 권연 쇠양
 갑 까지 늘어노았구려
 동글동글 흐게 먹으로 고리를 그리고 그속에 일이삼수오륙칠팔노삼십
 스십 까지 뼈노았네
 쟁골쫑골흔 공방을 갓흔 것을 빅전두푼이며 사가지고
 쪽글쪽글 굴녀셔 엊등구멍으로만 들어가면 눈 씀작흘 동안에 더시계
 가 너물건이지
 돌듯돌듯 흐더니 이편에가 턱부뒷ㅅ고 더편에가또 부뒷는다
 쟁겻겻겻 흐면서 상동잇는곳에는 빙빙싸고돌더니
 한들한들흐며 긋치라다 안 긋치고 쪘 한번다시돌너
 까덕까덕흐고 혼곳으로 가더니 감쪽갓치 쪽붓흐니
 아차아차흐며넛 발도듬을흐고 들여다보는듸
 바삭바삭흐더니 성양두갑을 쓰느여쥬며 쥬인령감상이 열네발을친넉가
 절엉절엉흐며 엽낭속에 손을너어 돈을 쪽집어닌다
 죄촘촘촘 들어셔며 펠적 돈을 집어느여 열량빅량 잇는듸로 혼푼업시
 다 텔엇네
 붓썩붓썩 몸이달아 제돈바□는자는 말흘 것업거니와
 얼는얼는 가논세월 앗가온줄 몰하고 반일이나 구경흐는 나도 혼쌔진
 사롭이지
 어셔어서 경신차려 눈쓰고 결명말고 집으로들 돌아가오 빅번천번에
 혼번도 되지못흐나니¹¹⁾ (□는 판독되지 않는 글자의 표시임-인용자)

10) 권두연, 「『제국신문』 잡보 ‘하위란’의 형식 실험과 수사적 전략」, 『현대문학의 연구』 63집, 2017, 232-235쪽.

웃둑웃둑, 붉웃붉웃, 둥글둥글, 쟁굴쟁굴 등 다양한 의성어와 의태어들을 사용하여 저잣거리에서 일종의 도박을 벌이는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신없이 구경하다 결국 시간과 돈을 잃고 혼이 빠지는 것을 경계하며 “어셔어서 정신차려 눈쓰고 절명말고 집으로들 돌아가오”라며 조언한다. 이처럼 한글 표현이 세태를 풍자하고 계몽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데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흥미로운 점은 한글로 된 의성어나 의태어 표현과 한글의 자모를 활용하거나 동일한 어미들을 반복하는 일련의 기사들이 등장하는 시기다. 이전까지 『제국신문』 기사에서 이러한 방식의 글쓰기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았거나 사용되지 않았다. 한글 표현과 관련한 이 일련의 현상은 유독 미공개 자료(1907.5-1909.2)에서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 시기는 공교롭게도 『대한매일신보』 국문판이 발행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대한매일신보』는 1907년 5월 23일부터 국문판을 발행했고 영국인이 사장이라는 이유로 검열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기에 언중들로부터 상당한 인기가 있었다. 『제국신문』은 경쟁관계에 있었던 만큼 이 점을 여러 차례 토로 했으며¹²⁾ 실제 이는 신문 판매부수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했다.

또 한편에서는 지석영을 위시한 국문연구회의 설립 시기와도 맞물리면서 국문과 관련한 몇몇 정황들과의 연관성도 포착된다. 『제국신문』은 1907년 1월 13일 국문연구회가 발기하기도 전에 앞서 그 소식을 전했고 이후 국문연구소로 변화, 발전해 간 국문연구 단체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주시했다.¹³⁾

11) 「項門針」, 『제국신문』, 1907.7.5, 3면 잡보.

12) “대한매일신보는 조리로 경무공문부 검열을 받지안이 흔던 터이더니 근간에 엇지된 리허인지 그 신문도 장차 검열을 받게된다더라”, 「亦受檢閱」, 『제국신문』, 1907.5.11, 3면 잡보.

13) 「國文研究會」, 『제국신문』, 1907.1.5, 3면 잡보; 「國文研究의 請議」, 『제국신문』, 1907.7.9,

결과적으로 전자는 매체의 사용 문자가 국문 독자를 향해 있다는 점에서 경쟁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후자는 국문의 저변화를 상호 보조한다는 점에서 『제국신문』이 기사 작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한글을 활용하려고 시도했다는 데 힘을 실어 준다. 〈말모듬〉과 〈국문풍월〉같은 『제국신문』의 현상모집은 이러한 연장선에서 등장한 것으로 간주된다. 특히 현상모집의 두 양상이 모두 국문, 즉 한글 활용을 추구했다는 점은 강조 될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말모듬〉은 재담이나 당시 유행하고 있던 문장 표현을 문제로 내고 맞히는 현상문제로, 각종 모양으로 한글 글자들을 배열해 놓고 해당하는 조건에 맞춰 정답을 찾는 일종의 말놀이다. 전적으로 한글을 활용한 언어유희로 볼 수 있는 이 같은 현상문제는 독자들에게 한글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국신문』 구독자들의 한글 활용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국문풍월〉은 〈말모듬〉에 이어 진행된 현상모집으로 제목에서부터 짐작되듯 국문으로 된 풍월, 즉 한글 시 짓기다. ‘국문풍월’에 대해서는 언문풍월이나 한글풍월과 관련하여 시가 연구자들에 의해 이미 오래 전부터 거론되었지만¹⁴⁾ 그 구체적인 형태와 방식에 관한 논의는 앞서 언급한바, 자료가 미비했던 이유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어지는 4장에서 현상모집으로 진행된 〈국문풍월〉의 구체적 양상은 물론, 현상

3면 잡보.

14) 참조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홍신선, 「국문풍월에 대하여」, 『기전어문학』 3집, 1988, 183-189쪽; 진갑곤, 「언문풍월에 대한 연구」, 『문학과 언어』 13집, 1992, 251-270쪽; 김영철, 「언문풍월의 장르적 특성과 창작양상」, 『한중인문학연구』 13집, 2004, 52-77쪽; 박슬기, 「근대시의 인식과 언문풍월」, 『한국시가연구』 38집, 2015, 49-71쪽.

모집에 응모한 응모작들을 검토함으로써 『제국신문』이 실시한 현상모집의 성과와 한계를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3. 한글로 낸 문제, <말모듬>

1907년 10월 12일 『제국신문』 2면에는 「懸賞問題」라는 제목으로 “본보
데슴면에 말모듬이라는 문제를 광고하고 히득흐눈이에게 시상하겠소”¹⁵⁾
라는 잡보가 게재된다. 기사 문구 그대로 ‘말모듬’이라는 문제를 광고할
터이니 이를 풀어서 답을 얻는 자에게는 시상하겠다는 내용이다. 즉 ‘말모
듬’이 상금을 걸고 문제를 내는 일종의 현상모집임을 알 수 있다. 같은
날 3면에 실제로 ‘말모듬’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기사가 실린다.



〈그림 1〉 1907년 10월 12일 3면에
게재된 말모듬

15) 「懸賞問題」, 『제국신문』, 1907.10.13, 2면 잡보.

제시한 사진 자료를 살펴보면 2단 구성으로 되어 상단에는 ‘말모듬’이라는 제목 아래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네모 칸 안에 제시한 뒤 문제 양 옆으로 “이안에쓴것을히득흐시거든히득흔물을자세괴록흐야봉투에긴봉흐고성명거쥬를기록흐야리월요일느로본샤로보너시옵”이라고 안내되어 있다. 그리고 하단에는 위의 ‘말모듬’과 동일한 부호를 사용하여 “알기만 하시면 상등이지”라는 문구를 제시하고 다음과 같은 응모에 관한 잡다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한다.

본샤에서 신문 익독흐시는 첨군즈의 연구흐심을 위흐야 자미<잇>고 이상흐고 어려운 물못음이라흐는 문제를느고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는 친답 두가지를 흔디 흔합흐야 셋스되 십륙즈식 되는 두가지 물이 오니 두 가지를 다 희득흐면 일등상품을 들이고 흔가지만 희득흐면 이등상품을 들이오 (상품) 일등 이원표 이등 일원표 이표를 타시거던 즌고기 쓰옥상답(土屋商店)에 가셔 표에 가치디로 무슨물품이던지 츄즈가시오¹⁶⁾(<>는 인용자)

〈말모듬〉이라는 현상모집 광고는 크게 문제-응모 안내-풀이 방법 및 상품 안내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먼저 문제부터 살펴보면 문제는 순전히 한글로만 이루어진 글자들의 배열로, 일정한 글자와 글자 수를 제시하고 이 글자들로 이루어진 재담이나 한글 문장 표현을 맞히는 형태다. 주목할 것은 “자미”와 “이상”함과 “어려”움을 수반한 문제를 제시하고 맞혀보라는 일종의 퀴즈 같은 이 형식이 목적하고 있는 바이다. 인용문에서 밝힌바, “현상문제”의 목적이 신문을 애독하는 독자들의 연구를 위해서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연구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문제의 형태로 보아 한글을 활용한, 한글과 관련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문제 양 옆의 응모 안내에는 해석한 정답과 응모자 성명 및

16) 「말모듬」, 『제국신문』, 1907.10.12, 3면.

거주지를 쓸 것과 응모 마감 기한을 명시한다. 응모 기간은 첫 회를 제외하면 평균 6일 정도 소요되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첫 회는 10월 12일에 공고가 나가고 13일에 재공고가 한 번 더 있은 뒤, 이를 후인 15일에 응답자를 발표했다. 공고에서 응답자 발표까지 겨우 나흘이 걸린 셈이다. 응답자 발표는 “■말모듬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되었는데 여기에는 해답과 응모 상황, 그리고 정답자를 소개한다. 정리하면 〈말모듬〉은 현상문제를 통칭하는 제목이고, 말모듬→재공지→말모듬 해석 순으로 전개되었다. 우선 문제를 공지하고 이를 여러 차례 광고했으며 문제의 정답 및 풀이와 함께 정답자를 발표하는 순서로 전개된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1회부터 5회까지 총 다섯 차례가 실시되었고 진행된 날짜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말모듬〉 진행 일정

횟수	〈말모듬〉 문제 공고	재공고	〈말모듬해석〉 정답 및 정답자 발표
1회	1907.10.12	13	10.15
2회	1907.10.19	20,22,23,25,26	10.29
3회	1907.11.6	7,8,9,10	11.12
4회	1906.11.16	17	11.22
5회	1907.11.23	24	11.29

*횟수는 연구자가 임의로 설정한 것임

앞서 언급했듯 1회는 예외적으로 공고를 낸 지 3일 만에 정답 및 정답자를 발표하고 2회부터는 재공고의 기간이 늘어나면서 해석자 공지 역시 일정 기간을 두고 이루어진다. 3회부터는 공고를 낸 지 6일 후 해석을 게재하는 방식으로 기간이 일정해진다. 2회부터는 정확한 마감 시간과 지방에서 응모하는 방법까지 첨부되었다. 지방은 마감 기한으로부터 이를 전이며 우편만 시행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경성은 신문사로 직접

보내오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현상모집에 당선된 이들이 주로 경성 거주자인 점으로 보아 이러한 짐작은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간주된다.

마지막으로 현상모집의 목적과 ‘해석’ 즉 문제 풀이 방법, 그리고 현상으로 내건 상품의 내용과 교환 방법에 관한 설명이 이어진다. 현상모집의 목적은 앞서 서술한바, 독자들의 국문 즉 한글 연구를 위해서다. 문제 풀이 방법은 무작위로 배열해 놓은 한글 낱글자를 조합해 〈말모듬〉이라는 제목처럼 말을 모으는 것이다. 일종의 재담같이 익히 알려진 구절이나 당시 유행하던 말 두 개를 찾는 것으로 두 문장 모두에서 중복되는 글자는 제외해야 한다.

상은 두 가지 재담을 모두 맞힌 사람에게 이원에 상당하는 표를, 한 가지를 맞힌 사람에게 일원에 상당하는 표를 제공하고 이를 진고개에 있는 쓰옥상점(辻屋商店)에 가서 가격에 해당하는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일종의 상품권과 같은 것이다. 진고개는 1880년대 초부터 일본 거류민들이 상점을 열고 영업을 하고 있던 곳으로, 쓰옥상점 역시 이 가운데 하나이다. 『제국신문』에는 쓰옥이라고 표기하고 있지만 이 상점은 ‘즈지야’로 1897년부터 『독립신문』에 광고를 내고 각종 잡화들을 판매하고 있었다.¹⁷⁾ 이연경에 의하면 츠지야(辻屋) 상점은 도쿄에 본사가 있고 서양에서 들어온 박래(船來)잡화를 취급하며 진고개에 있는 것은 경성 본정 지점을 가리킨다.¹⁸⁾

5회에 걸쳐 이루어진 〈말모듬〉의 전개 양상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7) 『독립신문』, 1897.5.13, 4면 광고.

18) 이연경의 책에는 츠지야 상점의 사진이 부록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1층 목조 건물로 건축양식은 일본식 마치야로 쇼윈도우가 있다. 이연경, 『한성부의 ‘작은 일본’, 진고개 혹은 本町』, 시공문화사, 2015, 175쪽 및 383쪽.

〈표 2〉 〈말모듬〉 실행 내역

공고	문제	해답/풀이	응모 상황	해답 상황	
1		(→) 저 밤낮 콩콩짓 눈지 팟畋기도 뜻먹 엇다 뜻은 팟畋기도 못먹은 가기 밤낮으 로 콩을 찾는다 (→) 저 팔작팔작(八 집) 되는 두가지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는 지 담 두기지를 흔디 흔 합하야 셋스되 십륙(十六) 되는 두가지 를 다 헉득하면 지 빠 풀 사 면 사 죽 면 기 암	말모듬은 작일 로 명한하고 련 히석호였기로 일등 상품 이화(二圓標) 를 주고	한이도 맞치지 못하고 고 유독 양성화씨가 두가지 말을 모다 로 명한하고 련 히석호였기로 일등 상품 이화(二圓標) 를 주고	
2		흔귀절은 십팔조오 흔 귀절은 십일조이니 두 밀을 합하면 이십구조 안디 이십일조만 괴롭 하고 흔글조가 두번쓰 이는 것 예들은 흔자식 만두고 다 세여마렛스 니 엇더흔조들을 두번 식쓰면지 이십구조로 두구절의 물을 모으시오	—비먹고 빈압흔 터는 차를 차게먹 어야 약이지 그간자은갓은 웃 에 웃이못소 드루 번 쓰는조는 비, 멕, 차, 갓, 은, 웃, 이, 지,	작일까지 경향 각쳐에서 온 히 석이 이박습십 스장인디	두가지말을 다 히 석호신이는 업고 전번에 일등상 타 신 양성화(梁景和)씨가 데일귀 한가지만 맛첫기 로 이등상 일환표 를 출급 흐엿노라
3		흔구절에 十一字 식 두구절이면 합 二 十二字인디 기증에 세번 겹후쓰는 글조 두조를 썹고 十八字 만 괴록흔조스니 무 순글조이든지 두조 만 세번식너어 말을 만드시압	—비지고 빙타니 비가 세일다 —알국에 데힌님 이 일알흘곤	경향각쳐에서 들 어온 히석문 슈 빅장	송달섭(宋達섭)씨 와 셔서 손온동 삼 십수통 삼호 무명 씨 두분이 맛첫스 되 밀꽃해 (다)와 (곤)을 뱃구어 췄 기로 두분을 다이 등상을 주었노라
4		우리나라에서 흔히 쓰는 말 두가지를 흔 디 흔합하야 셋스되 흔구절은 십사조오 한구절은 십이자라 합 이십륙자인디 그 중 두 번쓰이난자 여 섯조를 흔조식 빼여 버리고 이십조만 괴 록흔조고	청년의 기진이 나 라의 진보니 여기 에는 집이 산보다 무겁게 있다 두 번쓸글조는 의 진 보 기 다 이	일등상 남서명 동 칠십오통륙 호 박명철 대구 서문의 김치윤	

5		<p>말 혼마디에 이십륙 즈 되는 것을 괴록혜 양스되 네 번쓰이는 즈가 두즈인고로 혼 즈식만두고 여솟즈 는 쪽여벼려 이십즈 만 괴록혜양소</p>	<p>여달이 둑근디 달 이 반달이라지 그 거웬말인고하니 보름달이야</p>	<p>이말모듬에 뒤 하야 경향각처 에셔들어온 히 석이 삼복이십 스장인디 기증</p>	<p>중서 슈문동 칠십 이통삼호 김강한 (金康漢)씨의 히 석이 민것스되 혼 즈를 그릇쁘기로 이동상을쥬었노라</p>
---	---	--	--	--	---

1회부터 살펴보면 문제의 경우 사각형의 네 모서리를 ×모양으로 잇는 형태로 글자를 배열했고 네 모서리의 글자가 만나는 중간에는 부호 ○로 처리했다. ○를 꼭짓점으로 한 네 개의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사각형을 연상하면 된다. 총 5회에 걸쳐 실시된 〈말모듬〉 가운데 유일하게 부호를 사용한 예이다. 네 모서리의 끝은 동일한 글자인 “다”와 “난”으로 되어 있고 사각형의 왼쪽에 “다”가, 오른쪽에 “난”이 위치한다. 사각형은 모든 면이 일곱 글자로 이루어져 총 24자로 구성되어 있고 중앙의 ×모양은 ○를 중심으로 각각 두자씩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된 글자 수는 총 32자이다. 1회 문제에 대한 정답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 (一) 쳐 밤낫 콩콩짓는기 팟찢기도 못먹었다
쫓은 팟찢기도 못먹은 기가 밤낫으로 콩을찻는다
- (二) 쳐 팔작팔작(八鵠八鵠)나는 가치 혼마리챤이로다
쫓은 팔죽이면 가치가 여덟마리인디 혼마리가 팔작팔작난다¹⁹⁾

문제에 의하면 정답은 “십륙즈”로 된 두 개의 재답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두 문장 모두 16자로 이루어졌다. 콩과 팟, 개와 까치처럼 일상적인 소재에 개 짓는 소리나 까치 나는 소리 등 유사한 의성어나 의태어를 활용해

19) 『말모듬히석』, 『제국신문』, 1907.10.15, 3면.

언어유희를 유발하는 재담들로 글자와 글자수를 제시하고 해당 구절을 찾는 방식이다. 정답 외에 뜻풀이도 첨부되었다. 뜻풀이는 1회에만 적용된 것으로 보아 굳이 제시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 것으로 간주된다.

2회는 1회와 달리 ×모양으로만 글자가 배열되어 되어 있고 부호 역시 사용되지 않았다. 문제의 글자수에 맞게 글자의 모양과 배열이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1회와 달리 중복되는 글자들을 배제하기 시작한다.

흔귀결은 십팔조오 흔귀결은 십일조이니 두말을 합흐면 이십구조인듸
이십일조만 그록흐고 흔글조가 두 번쓰이는 것 여덟은 혼자식만 두고 다
빼여버렸스니 엇더흔조들을 두번식쓰던지 이십구조로 두귀결의 물을모으
시오²⁰⁾

실제로 문제에 대한 정답을 공지할 때 두 번씩 사용된 글자들을 다음과 같이 별도로 표시한다.

- 一 빼먹고 빼압흔되는 차를 차게먹어야 약이지
- 二 갓지은 갓은 옷에 옷이못소
- 三 두 번 쓰는조는 빼, 먹, 차, 갓, 은, 옷, 이, 지²¹⁾

1,2,3회는 문제의 모양이 다 다르지만 4,5회는 유사하다. 후반으로 갈수록 단순해지고 일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1,2,3회는 “우리나라에 셔 흔히 쓰는 짓담 두 가지”라고 표현했지만 4,5회는 재담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당시 매체에서 자주 등장한 계몽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20) 「말모듬」, 『제국신문』, 1907.10.19, 3면.

21) 「말모듬해석」, 『제국신문』, 1907.10.29, 3면.

청년의 기진이 나라의 진보니 역기에는 집이 산보다 무겁게 있다
두 번 쓸 글즈는 의 진 보 기 다 이²²⁾

정리하면 두 개의 재답이나 문구를 합해서 만들었기에 정답이 두 개이나 4회처럼 두 문장을 연결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 밖에 1회의 경우처럼 재답의 뜻풀이가 있는가 하면 2회부터 뜻풀이는 생략되고 중복 사용한 글자를 정답과 함께 제시하기도 하지만 또 5회처럼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해답을 한 가지 유형으로 수렴하거나 단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문제를 내는 방식에는 어느 정도 일정한 규칙성이 보이는 데 반해 해답을 풀이하는 방식에는 그러한 일관성이 도출되지 않는다.

눈 여겨 볼 것은 응모 상황과 정답을 맞힌 정황에 관한 설명이다. 회마다 몇 명 정도가 응모했는지 응모자수를 공개했고 이어 정답자를 발표했는데 이때 정답에 대한 오류까지 상세하게 지적하고 있는 정황이 목격된다.

1회 : 호아도 맛치지 못하고 유독 량경화씨가 두가지 말을 모다 히석호
였기로 일등상품 이환(二圜標)를 주고 기외에 경성증셔 상어의동 십통일
호 김교성씨가에 류호는 김광현(金光鉉)씨도 히석호야 웃스나 글즈의 츠
셔가 조곰 를냈기로 이등상품 일환표(一圜標)를 주었노리²³⁾

2회 : 두가지말을 다 히석호신이논 업고 전번에 일등상 타신 량경화(梁
景和)씨가 폐일귀 한가지만 맛첫기로 이등상 일환표를 출급호 엿노리²⁴⁾

22) 「말모듬해석」, 『제국신문』, 1907.11.22, 3면.

23) 「말모듬히석」, 『제국신문』, 1907.10.15, 3면.

24) 「말모듬해석」, 『제국신문』, 1907.10.29, 3면.

3회 : 송달섭(宋達섭)씨와 서서 수온동 삼십수통 삼호 무명씨 두분이
맛첫스되 말못해 (다)와 (곤)을 밧구어 깻기로 두분을다이등상을 쥐었노
라²⁵⁾

5회 : 증서 슈문동 칠십이통삼호 김강한(金康漢)씨의 희석이 무것스되
호조를 그릇깻기로 이등상을주었노리²⁶⁾ (밀줄 강조－인용자)

4회를 제외하고 총 응모한 명수에 대한 응모 상황과 정답에 대한 상
급을 매겼는데 이때 두 문장을 모두 완벽하게 맞힌 이에게 일등상을, 글
자의 순서가 바뀌거나 글자를 누락 혹은 잘못 쓴 경우 이등상을 주었다.
1회와 2회는 동일 인물인 량경화가 정답을 맞혔고 3회의 경우처럼 정답
을 맞혔지만 이름을 쓰지 않은 경우도 있다. 문제는 해석을 해도 글자의
순서가 맞지 않거나 한 글자를 잘못 쓰는 등 정답이 상당히 까다로워
정답자가 많지 않았다는 점이다.

총 5회에 걸쳐 응모한 응모자수와 정답자 및 상급은 다음과 같다.

〈표 3〉 〈말모듬〉 정답자 및 응모자수

회	정답자 이름	주소	상급	응모수
1	량경화(梁景和)	경성북서 간동 이십오통이호	일등	백여장
	김광현(金光鉉)	경성증서 상어의동 십통일호 김교성씨가	이등	
2	량경화(梁景和)		이등	234
	송달섭(宋達섭)	경성서서 수직감되설 칠십일통삼호	이등	
3	무명 2인	서서 수온동 삼십수통 삼호	이등	수백장
	박명철	남서명동 칠십오통륙호	일등	
4	김치윤	대구서문	미언급	
	김강한(金康漢)	증서 슈문동 칠십이통삼호		이등
5				324

25) 「말모듬해석」, 『제국신문』, 1907.11.12, 3면.

26) 「말모듬해석」, 『제국신문』, 1907.11.29, 3면.

총 응모수부터 살펴보면 1회에는 정확한 숫자를 밝히지 않고 백여 장이라고만 했다가 2회에는 234장, 3회에도 수백 장이라고 대략의 수치만 언급했다. 4회에는 응모수를 밝혀 놓지 않았고 5회에는 324장이라고 구체적인 명수를 밝혔다. 정확한 수치를 밝히지 않은 3, 4회를 제외하면 응모수는 점차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 백여 장에서부터 거의 3배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토록 많은 응모에도 불구하고 해답자는 표에서처럼 기껏해야 한두 명에 그친다. 그것도 정확하게 해석한 것이 아니기에 일등상을 받은 응모자는 극히 드물다.

이처럼 상당히 많은 응모수에도 불구하고 해답자가 적었다는 것은 재미는 있지만 해답을 맞힐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이가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말모듬〉에 제시된 문제의 수준이 『제국신문』 독자들에게 그만큼 어려웠음을 방증한다. 『제국신문』의 현상모집을 통해 도출된 높은 참여율과 낮은 정답률이라는 결과는 한글에 대한 독자와 사측의 간극을 드러낸다.

응답자수에 비해 해답자가 적었다는 것, 해답이 그만큼 까다로웠다는 것은 독자들의 수준과 사측의 눈높이가 맞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은 물론 독자들의 흥미를 반감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결국 〈말모듬〉이 5회까지 진행되고 〈국문풍월〉로 바뀐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11월 29일 김강한의 해석이 현상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끝으로 〈말모듬〉에 관한 기사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대신 3주 정도 지난 12월 18일 〈국문풍월 현상모집〉이라는 광고가 실린다. 그러니까 〈말모듬〉 대신 〈국문풍월〉로 현상모집의 형태가 바뀐 것이다.

4. 한글 시 짓기, 〈국문풍월〉

〈국문풍월〉은 제목처럼 국문으로 풍월을 짓는 작시 모집으로 문예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점에서 현상문예로 간주할 수 있다. 〈말모듬〉과 달리 공고에 “현상모집”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는데 아래 인용문은 광고의 전문이다.

국문풍월 현상모집(懸賞募集)

우리 나라에서 본류 한문을 가지고 오언(五言)이나 칠언(七言)의 귀글을 짓는 일은 잇스되 우리나라의 글로 귀글을 짓는 일은 듬을기로 본사에 셔 이일을 권양호기 위호야 글데와 운즈를 낙여 전국에 광포호고 국문풍월을 만히 모집호야 명년 일월일일 본신문에 게지호고 공경호게 쏟아셔 일 이 삼등에는 상품을 보너겟소오니 전국 유지호신 동포는 본월 이십오 일 안으로 만히들 지어보너압

다만 글짓는듸 한문 문즈는 쓰지말고 순전호 우리나라 말로만 일곱즈 글두귀를 지으시압

▲글데 눈(雪)

▲운자 날 발 갈

▲상품 일등은 우산 혼기

이등은 목도리 혼벌

삼등은 지갑 혼기²⁷⁾

〈국문풍월〉의 취지와 현상 내용, 응모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취지로 내 건 이유가 흥미롭다. 한문으로 시를 짓는 일은 있었지만 우리나라 글로 된 시를 짓는 일은 드물기에 이를 권장하기 위해서라는, 흡사 한글 시 짓기 캠페인을 방불케 한다. 조건으로 내세운 “한문 문즈를 쓰지말고

27) 「국문풍월 현상모집(懸賞募集)」, 『제국신문』, 1907.12.18, 3면. 같은 내용이 12월 19부터 24일까지 정기휴무인 23일을 제외하고 총 5회 더 광고된다.

순전한 우리나라 말”로만 된 “일곱자 글 두귀”와 제시한 글체 및 운자 역시 한글 시의 형태를 말해준다. 글체와 운자, 글자 수 등 한시의 형태를 차용하되 한문이 아닌 한글로 시 쓰기가 바로 〈국문풍월〉의 핵심적 특징이다. 『제국신문』의 독자층이 한글을 구사한 이들이었음을 상기한다면 이는 분명 독자들의 한글 활용을 적극적으로 촉발하기 위한 견인책으로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상품은 〈말모듬〉과 달리 우산이나 목도리 지갑과 같은 잡화들로 구성되었다.

광고에 언급한 대로 1월 1일자 3면 전면을 사용해 응모된 시를 게재한다. 응모작의 게재에 앞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리는데

운주의 늘, 밤, 갈, 은 활자가 부족한기로 (○)으로 대신하고 흰(白)주의
정음이 업셔셔 (한)으로 되용하고오니 첨군주는 죠량한 시압²⁸⁾

게재된 시를 읽는 방법을 제시하는 일종의 일러두기와 같은 것으로 당시 인쇄환경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활자를 하나하나 조합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족한 활자를 부호로 대체한다든가 소리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글자를 대용해 간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한글을 “정음”, 즉 바른 소리로 표현한 데서 『제국신문』의 국문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지면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이들이 응모했고 참여한 응모자들이 보내온 응모작들은 다음과 같다.

〈표 4〉 〈국문풍월〉 1회 신년호 응모자 명단(게재 순서)²⁹⁾

	이름	거주	상급/나이/비고 ³⁰⁾	내용 (①②③④순으로 읽음)
1	리희순	남서소광교	일등(십이세녀)	①미운바름치운날②뜰에가득차눈발 ③옥을갈아뿌린듯④씨꽃한마한벗갈
2	리의득	증서	이등(십이세)	검은구름여하날 퍼붓는다큰눈불

28) 『국문 풍월』, 『제국신문』, 1908.1.1, 9면(第三).

				나모나모꽃송이 모이모이은빛같
3	채석희	슈원	삼등	왜풍부는겨울날 놀나난이한눈발 발못치개쓰인뒤 뒤와압히흔빛같
4	최덕진	남서다동	삼등녀학성(십삼세)	바름불고점은날 날니눈이찬눈발 나모나모비꽃은 희고희다은빛같
5	리희영	중서상한동		바름불고흐린날 펄펄나는더눈발 나모가지은장식 흰잔며세이비같
6	장의갑	봉산		솔솔뿌려오는날 분칠ჩ지원살발 비미화가푸인듯 푸른나묘희경같
7	김병환	봉산		포똑포똑듯는날 송골송골소곰불 산아모도한복식 희고찬것제품같
8	신경중	남서동현		되오차다오날늘 합박갓흔그눈발 쉴식업시뿌리니 쓸수업네두눈같
9	리경근	남서동현	*독립운동가	메일찬날오날날 면화갓흔더눈발 합박갓치쏘다져 쓸식업다두눈같
10	장학수	중서쥬석골		눈이산에쓰인날 편흔것이집신불 고기념는물소아 어렵고다녀티갈
11	성미석	례산		눈이펄펄오는날 더욱차다니嬖발 오고가는횡인들 사름마다한티글
12	밀아즈	기성	*유원표	담아붓듯오눈날 뜻쳤고나나귀발 보리치는길에는 쓸수업다두준갈
13	박춘경	중서승문동	*명창/독립운동가	회점을고치운날 다뭇쳤다녀산발 기째들정독경동 식소리작갈작갈
14	김인식	평양보통문학	*음악교육가	오슬오슬치운날 거름거름것는발 쌔득쌔득소리는 갈충흐잔다흘갈
15	김경승	동서호동	경신학교교사	산들හ이웃단장날 벗히보니서리발 비갓갓흔고흔짜 곳곳마다은빛같
16	김동빈	동서호동		손벼갓치나린날 밥고가니찬신발 넓은길에옥기루 주린식들다갈갈
17	무명	남서후동	팔십구통이호	눈이찬이독한날 자바자박것는발 여름에길것다가 참외먹은이하 갈
18	김록득	종로선전장방		더기명명눈온날 더듬씩교나는발 절어구에안존증 은꽃피엇네곡같
19	미션싱	주소누락		구경묘흔겨울날 찬줄물나이손불 눈속꽃을찻고져 쳐는나귀된자같
20	굴정식			문았고나오날날 자죽자죽뉘신발 소금부려노흔듯 조출하디녀빛같
21	일가성			붉은구름시벽늘 풀풀난다녀눈발 가지마다꽃송이 여괴여괴한빛같
22	윤연유	중서지전후동		엄동시결별봄날 련디에비꽃만불 잡식은반겹업고 순전하디한빛같
23	장옥조	주선부인회		류리세계오날늘 청송록죽한눈발 여눈이곡식되면 구호세동포기같
24	소송성			미운바름겹은늘 나리눈이여눈○

				구슬슈풀온나모 강과산이한벗같 담아붓듯오는날 즘간가득한수불 이려며리쉬는기 못보다지녀눈같
25	김규영	북서간동		울찌항상겨울날 비발간뒤이눈○ 뉘기알가밤사이 강과산이한벗같
26	리성서	례산군아중		근일爻치치운날 분분히다녀눈○ 흘슈업는동포들 엇지침노그그같
27	류세중	중서쥬동		비꽃과똑갓거날 불은엇지여삿○ 줍도업는꾀마다 셀족셀족한곡같
28	류창교	중서쥬동		봄날이안이어날 쯧이되니녀기○ 밋그리온녀길가 오목오목모발되같
29	박취원	중서지면후동		침고치운겨울날 번쩍번쩍녀눈발 온가루쌀자루면 수면에부즈해갈
30	리소스	례산군아중		대단차다오날날 놀나난이또눈발 침도덥도아니튼 다시보면지난갈
31	연암성			검은구름치운날 얼어나린녀비발 산과들도다한듸 학의이마불빗같
32	오운성			침고흐린오날날 쑤리난이녀눈발 수면두루덥힌 것 산과들이한벗같
33	김진학	동서신교		바람불고치운날 쑤리난이녀눈발 산마다보이난것 비꽃爻흔한벗같
34	류순동	진명녀학교학원		동지셋달치운날 펄펄날닌녀눈발 나무마다꽃뛰여 옥과갓흔한벗같
35	류점돌	스립신명소학교학원		바람불고치운날 비꽃갓흔한눈발 석자기리오시니 산과들이한벗같
36	최기창	인천축현제성당너	십수세	바람불고치운○ 풀풀나는녀눈○ 이골져골덥힌 것 비꽃갓흔한벗같
37	김봉경	북서옥동		동지에물어는○ 눈우에꽃은기○ 산길에단이눈중 떡락에날난곡같
38	라광용	은진읍느니		바람불고점은○ 주먹갓흔져눈○ 눔나짐이업눈길 텔면간다증곡같
39	라궁락	기성이슈교		미우침다오날○ 나리난이녀눈○ 하날쌓이hoodi 거문것은기눈같
40	김태영	황토현리발소		출한울록이제○ 하날우에져눈○ 소대설지니가니 겨울동즈다할갈
41	김칠득	북서누각동		쌀미타고노는○ 눈위꽃은토씨○ 술나모이리더중 훌훌분디쓴곡같
42	허창성			꽃피엿다아침○ 자죽자죽여기○ 눈을참말못보나 이리며리웨해갈
43	취와성			맛잇도다눈온○ 막걸니기한종○ 질뚝비기술국밥 어서다고놋숙같
44	김시명	중서면주전골		바름비다업는○ 쟈살오는져눈○ 들에덥혀온바다 뢰에꺾워증곡같
45	한덕진	기성		굿득어나차운○ 뇌리눈이서리○

				하날싸이다한듸 멀니못본이눈같
46	박영	기성		흐려온다어둔○ 차고흰벗서리○ 사람마다보는듸 못보는이기눈같
47	리정직	중서렴전골		구름끼고치운○ 먼산즈옥눈의○ 바름쫓초는양 삼월비갓팔월같
48	박종성	남셔어두무골	십이세	이날며날언으○ 청년즈데파일○ 데눈갓흔학도들 충심으로다흘갈
49	성옥근	례산		옥갓흔눈오는○ 풀과나모다빅○ 데빛발근심마오 청춘이다시될갈
50	성경근	례산		면디막막한하○ 첨아마다슈정○ 의식업는동포들 엇지흐나져그같
51	도동립	남서양회동		빅성불상오날○ 양서롭다져눈○ 공변되신하느님 리화갓흔한벗갈
52	김우영	북서벽동		바람불고흐린날 풀풀오는겨눈○ 둘두루보아도 리화갓흔한벗갈
53	이봉상	봉산		길막혀서못갈○ 애고치워니손○ 희고희신하느님 빅옥갓흔밤뜻갈
54	송준문	인천		검은구름흐린○ 오락가락한솜○ 아모더나안져도 넓분터전다정갈 동북풍이부는○ 풀풀나는여눈○ 보기도케싸엿네 산봉마다한곡갈
55	오지영	중서대사동		눈만히온아참○ 바름자고구름○ 남계외앗꽃가지 꾀벗늙은중대갈
56	박정직	기성		어둡고남흔린날 은빛갓흔서리○ 나리눈이한가로 도하흐는기눈같
57	신경우	한강		가을가고겨울늘 만코만타서리○ 나모마다한미화 써는중놈한곡갈
58	장성원	북서청동강슈 원학교		동지셋달치울늘 창문여니한꽃○ 다변흐되어년디 저녁로의져벗갈
59	최원옥	셔서거복골		바름불고치운○ 펄펄난다화눈○ 링호연의나귀굽 되각되각언디갈
60	김일선	남서슈표교		추어마라겨울○ 부실부실잔눈○ 토실세상추흔짜 다엽흐니참정갈
61	박영신	인천룡동		엄동설한치운날 간곳마다한꽃불 금면철은다가고 언제불고오는갈
62	리우영	중서당피동		드러온벗덥은○ 산골에든곰의○ 봄비람에비울썩 갓치녹즈쇠작갈
63	류홍쥬	남서후동		눈이차막무전○ 쌀나쌀니것는○ 눈길에몸이어니 술먹으니참하갈
64	최창협	평창		눈은오고 치운늘 빈창자와 버슨발 불티우고 써난후 집업스니 어듸갈

29) 「국문 풍월」, 『제국신문』, 1908.1.1, 9면(第三).

30) 비고로 표시된 *는 연구자가 임의로 기입한 내용임.

총 64명의 응모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름과 주소가 명시되어 있는 사람은 53명, 이름은 누락되고 주소만 명시된 사람이 1명, 주소를 밝히지 않은 채 필명을 사용한 사람이 9명이다. 특이한 것은 이들 중 유독 나이와 성별이 밝혀져 있는 경우들인데 가령 리희순(12세), 리의득(12세), 최덕진(13세), 최고창(14세), 박종성(12세) 5명은 공통적으로 모두 10대이다. 또 리희순(녀 9), 최덕진(녀학성)처럼 여자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10대와 여자라는 사실을 별도로 명시했는데 이 점은 『제국 신문』이 10대의 어린 독자와 여성 독자의 존재를 강조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된다. 무엇보다 당선작으로 일등 1명, 이등 1명, 삼등 2명을 선정했는데 이들 중 한 명을 제외한 모두가 10대이거나 여자였다는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

응모자 가운데 학교나 단체와 관련된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도 특기할 만하다. 자선부인회의 장육조, 진명여학교의 학원 류순동, 사립신명소학교의 학원 류점돌, 북서청동강수원학교의 장성원 등이다. 자선부인회 장육조는 1907년 설립된 자선부인회라는 부인단체가 발행한 주관지 『자선부인회잡지』 회원명부에 이름이 등록되어 있다.³¹⁾

또 응모자들 중 눈에 익은 몇몇 명사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밀아자와 김인식 같은 이들이다. 개성의 밀아자라는 필명을 쓴 이는 『몽견제갈량』을 편찬한 유원표(劉元杓)로 그는 조선시대 역관으로 한과에 합격하여 한학관을 지냈으며 『황성신문』을 비롯한 각종 매체에 글을 기고한 언론인이자 저술가다.³²⁾ 1908년 국한문으로 출판된 『몽견제갈

31) 『자선부인회잡지 회보』, 『자선부인회잡지』 1호, 1908.8, 137쪽.

32) 『제국신문』은 『青會演說』(1907.1.8.3면), 『自強演說』(1907.1.17. · 21, 2면) 등 유원표의 연설을 게재한 바 있다. 유원표의 생애 및 매체 활동에 대해서는 이성혜, 『密璫子劉元杓에 대한 傳奇的 고찰』, 『동북아문화연구』 33집, 2012, 169-184쪽 참조.

량』은 꿈의 형식을 빌려 사회를 비판한 대표적인 계몽서적으로 통감부에 의해 금서 처분된다. 한학을 전공한 지식인이 한글 신문에 난 한글 시 짓기에 응모했다는 이 같은 사실은 흥미로운데, 당시 지식인들의 문예 활동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국신문』의 〈국문 풍월〉 현상모집에 대해 『대한매일신보』의 「천희당시화」에서는 “帝國新聞에 일즉 國字韻(날발갈, 낭징싱等)을 懸하고 國文七字詩를 購賞할 였스니 此七字詩도 或一種 新國詩體가 될가 曰否라 不可할다”며 비판적으로 인식했음을 고려한다면 이는 상당히 시사적이다.³³⁾

평양보통문 내에 거주하는 김인식(金仁湜) 역시 최초의 작곡자이자 서양음악의 선구자로 잘 알려진 음악 교육가이다. 1908년 당시 그는 중앙학교를 비롯하여 진명(進明) · 오성(五星) · 경신(敬新) · 배재(培材) · 보성(普成) 등 여러 사립학교에서 음악교사로 재직하면서 찬송가를 작곡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³⁴⁾ 이 밖에도 의병으로 활동한 이 궁래(李穀來)와 같은 이들도 포함되어 있다. 한말 개신 유학자와 서양음악가, 의병 등 다양한 인물들이 〈국문풍월〉에 응모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다.

구체적인 거주지를 표시하고 있기에 응모자들의 지역별 분포도 파악되는데 경성이 압도적이다. 경성은 동서, 서서, 남서, 북서, 종로, 한강 등 전방위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 밖에 수원, 봉산, 예산, 개성, 평양, 인천, 은진, 평창 등지에서도 응모해왔다. 지역별로 그다지 다양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한글 시 짓기에 응모한 이들이 전국적으로 포진되어

33) 「天喜堂詩話」, 『대한매일신보』(국한문판) 1909.11.17, 1면. 인용문에서 국자운으로 제시한 날발갈은 〈국문풍월〉 1회의 운자이지만 낭징싱은 2회까지 실시된 〈국문풍월〉에는 없는 운자이다. 이후 〈국문풍월〉이 더 실시되었거나 아직 발굴되지 않은 자료에 있을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34) 박은경, 「한국 최초의 작곡가 김인식 연구」, 『음악과 민족』 19호, 2000, 11-37쪽.

있음을 알 수 있다.

옹모에 당선한 당선작과 선행 연구에서 언급된 대표적인 작품들을 중심으로 옹모작들을 살펴보면 글제에 대한 지식이나 암운을 활용하는 방식 등에는 큰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다음은 일등부터 삼등까지 당선된 4명의 작품들인데

리희순(일등)	리의득(이등)	채석희(삼등)	최덕진(삼등)
미운바름치운날	검은구름여하날	왜풍부는겨을날	바름불고점은날
뜰에가득차눈발	퍼붓는다큰눈불	늘니난이힌눈발	날니눈이찬눈발
옥을갈아썩린듯	나모나모꽃송이	발못치게쓰인뒤	나모나모비꽃은
씩웃흐다한빛갈	모이모이은빛갈	뒤와암히흔빛갈	희고희다은빛갈

눈에 대한 이미지 묘사와 이에 대한 감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대개 유사하다. 하늘, 바람, 구름 등을 사용해 차고 희거나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구사하는데 다른 옹모작들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흥미로운 것은 한자로 된 단어들의 사용이 거의 없는 대신 의성어나 의태어의 사용이 극대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인용문에서처럼 “나 모나모”, “모이모이”, “희고희다”와 같은 표현 외에도 “포똑포똑듯는날 송 골송골소곰불”, “오늘오늘치운날 거름거름젓는발”, “여기명멍눈온날 더 둑싹교나는발”처럼 눈 오는 소리나 살갗에 파고드는 추위, 조심스럽게 눈길을 견는 모양은 물론이고 개나 닭 우는 소리 등, 다양한 감각과 행동들을 한글로 실감나게 구사한다.

한편 의성어나 의태어 등의 언어유희에 그치지 않고 세태를 풍자하거나 애국과 계몽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시들이 대표적이다.

기성 한덕직	기성 박영	례산 성경근	평창 최창협
굿득어나치운○	흐려온다어둔○	턴디막막한하○	눈은오고치운눌
너리눈이서리○	차고흰벗서리○	첨아마다슈경○	빈창자와버슨발
하날싸이다힌듸	사람마다보는듸	의식업는동포들	불디우고썩난후
멀니못본이눈갈	못보눈이기눈갈	엇지흐나져그갈	집업스니어듸갈

단순히 눈 오는 날의 풍경을 그린 것이 아니라 춥고 서리 내려 혹독한 계절에 빗대 시대의 참혹함이나 시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눈(目)을 개탄하는 등 세태 풍자를 드러낸다. 특히 마지막에 제시한 최창협의 시는 당시 전국적으로 출몰한 의병과 의병을 자칭한 무리는 물론 이들을 색출하고 진압하기 위해 나선 정부 관리와 일병들로 인해 불태워진 가옥과 이산한 가족들을 연상시킨다.³⁵⁾

장욱조	리성서	박종성	성옥근
류리세계오날늘	근일굿치치운날	이날뎌날언으○	옥갓흔눈오눈○
청송록죽힌눈발	분분흐나더눈○	청년啧폐피일○	풀과나모다빅○
더눈이곡식되면	흘슈업는동포들	더눈갓흔학도들	더빅발근심마오
구흐세동포그갈	엇지참노그기갈	충심으로다흘갈	청춘이다시될갈

인용한 시들은 앞서 살펴본 세태 풍자와 달리 구세제민 하자는 의미에서 낙관적인 계몽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특히 첫 번째 시는 언문풍월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된 자선부인회 회원 장욱자의 시로, 자선부인회가 지향한 계몽 단체의 성격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여성

35) 최창협의 시는 다른 글과 달리 『제국신문』에 게재될 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한 글과 함께 제시되었는데 글의 내용 중 “금년에 비도의계 부모 쳐즈가 리산흐고”라는 구절이 등장한다. 여기서 사용된 비도가 의병으로 해석될 여지가 없지 않지만 당시 의병에 대한 언론의 태도는 상당히 친정부적이었음을 고려한다면 비도를 반드시 의병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애국 위민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준다.³⁶⁾

두 번째 〈국문풍월〉 모집 예고는 1월 31일에 실린다. 그런데 이 예고 이전에 〈국문풍월〉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세 편의 국문풍월이 소개된다.

■국문풍월■

●술 옷것꼿 (옥파)	●담벽[ട] 남담함 (창석)	●거울 양정성 (위창)
잡혀먹자봄철옷	룬압혜네가남	느모양이네모양
취흐도록네량것	변쓰는물티비담	네걱정이느각정
한잔두잔또한잔	시집갓온식식시	눈발꽃치희털역
한명업다느돈꼿	감초는곳룡과함	보기슬혜느평성 ³⁷⁾

“술”, “담벽[ട]”, “거울”은 글제이고 “옷것꼿”, “남담함”, “양정성”은 운자이다. 인용문에서와 같이 세 편의 국문풍월의 글제와 운자가 모두 다르다. 무엇보다 현상모집의 방식으로 작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글제와 운자 옆에 ()는 작자 표시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실제로 창석을 제외하면 옥파와 위창은 이종일(李鍾一)과 오세창(吳世昌)의 호(號)이다. 두 사람은 근대 초기 대표적인 언론인이자 문필가로 시서화에 능한 것으로 이름난 인물이다.

특히 이종일은 『제국신문』의 초대 사장이었을 뿐 아니라 1917년 『천도교회월보』에서 주최한 현상모집을 끝은 작품집 『언문풍월』의 고시(考試)자이기도 했다³⁸⁾는 점에서 『제국신문』의 현상모집인 〈국문풍월〉

36) 이방원, 「한말 여성자선단체 '자선부인회' 연구」, 『이화사학연구』 50집, 2015, 267-305쪽 및 흥인숙, 「근대계몽기 여성 글쓰기의 양상과 '여성주체'의 형성 과정」, 『한국고전연구』 14집, 2006, 103-130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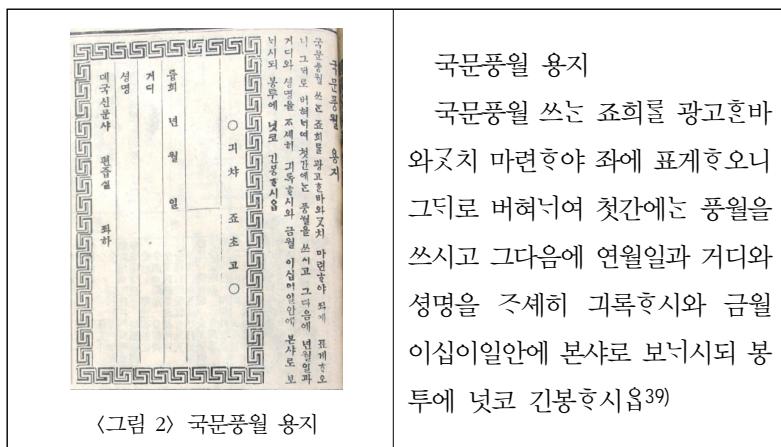
37) 『국문풍월』, 『제국신문』, 1908.1.16, 3면.

38) 이규호, 「황산 이종린 편 『언문풍월』 연구」, 『인문과학연구』 33집, 2009, 60쪽.

을 실질적으로 주도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다시 말해 〈국문풍월〉은 이종일의 기획으로 오세창과 같은 이들과 함께 논의, 실행되었고 이들은 『제국신문』의 〈국문풍월〉 이후에도 다른 매체를 통해 언문풍월의 확장과 지속에 관여했을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 본 세 편의 국문풍월은 일종의 모범 사례로 간주된다. 보름 후 2차 〈국문풍월〉 현상 모집을 낸 것은 이러한 연장선에서 이해된다.

2차 〈국문풍월〉은 1차 때보다 좀 더 체계화되어 〈국문풍월〉 용지를 마련할 터이니 그 용지에 써서 보내라고 공지한다. 실제로 2월 15일자 신문에 다음과 같은 〈국문풍월 용지〉가 광고된다.

용지에는 글제와 운을 제시하고 시를 적을 공간을 비워 둔 다음 날짜, 거주지, 성명을 밝히도록 하였다. 〈말모듬〉과 달리 규격화된 용지를 제공할 정도로 〈국문풍월〉에 대한 강한 의지와 열의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1월 31일에 2차 공고가 나간 〈국문풍월〉 현상모집은 2월 6일에서 14일까지 총 여덟 차례 더 광고되었다.



본사에셔 국문풍월을 모집호기 위호야 글례와 운조를니여 광포호오니
경향각처의 유지호신 귀부인 신수는 글을지어 보너시되 한문문조는 쓰지
말고 순연호 우리나라를로만 짓고 쪼 쓰누죠희는 이월십오일(음력정월십
스일)에 발횡호는 본신문 데삼면에 마련호야 공지로 둘터이오니 반드시
그죠희를 벼허니여 적어 보너시옵소서

상품은 여자흠

一등일인 본신문 삼삭치 무디가진명

二등이인 본신문 이삭치무디가진명

三등삼인 본신문 일삭치 무디가진명

글례

고자(화륜거)

운자 조 초 고

릉희이년 일월 삼십일일

제국신문사 고복⁴⁰⁾

2차 현상모집에서는 “전국 유지호신 동포”에서 “경향각처의 유지한 귀부인과 신사”로 그 모집 대상을 보다 분명하게 규정했고 현상으로 내진 상품도 잡화에서 신문구독으로 바뀌었다. 신문 구독자수를 늘리기 위한 통상적인 방법으로 간주된다. 글제 역시 고자(화륜거)로, 1차 ‘눈(雪)’에 비해 훨씬 더 시의성과 의미를 요구하는 대상으로 제시되었다. 당선자 수도 1등 1명, 2등 갑을 2명, 3등 갑을병 3명으로 늘었다. 다만 1차는 신년호였기 때문에 응모작들을 모두 소개한 데 반해 2차에는 당선작만을 게재했다.⁴¹⁾

39) 「국문풍월 용지」, 『제국신문』, 1908.2.15, 3면.

40) 「국문풍월」, 『제국신문』, 1908.1.31, 3면.

41) 당선작만을 게재한 것은 전략일 수도 있지만 2회부터 국문풍월 용지를 이용해 응모하라는 요구로 인한 감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술하겠지만 〈국문풍월〉 용지 사용과 현상 상품의 변경, 국문풍월회 개설에 관한 회비 등은 독자들에게 상당한

〈표 5〉 〈국문풍월〉 2회 당선자 및 당선작

번호	이름	거주	상급/나이	내용
1	리우영	경성중서수동이십통십삼호	一등	하로천리며직조 올적갈적썩마초 물과불의힘으로 번지갓치빠르고
2	죠진구	경성남서서빙 고이계오통이호	二등(갑)	털도늦는큰약조 서울인천첨시초 고동트는여소리 우리동포잠쁘고
3	량은순	경성서서동마신 정동삼십통륙호	二등(을) (십일세녀조)	신통히다며직조 누가낫나그시초 물과불의빠른힘 신들엇지싸를고
4	(미상)	경성종로립전발리방	三등(갑)	장호도다며직조 누가낫노애당초 쭈쭈소리몇번에 불서왓나다왓고
5	안순영	경성중서모교십통삼호	三등(을) (십삼세녀조) 명신녀학교학도	신통하다며직조 오고가는썩마초 멀고멀고쏘면길 갖다다시오는고
6	표추향	평북운산읍양리수통륙호	三등(병)	타고보니별직조 냉거마다썩마초 산천얼는니풀썩 번지갓치가는고

〈국문풍월〉이 『제국신문』 독자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끌었음은 독자 투고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평안북도 운산 읍내에 거주하는 표준경이라 는 독자는 기서를 통해 자신이 〈국문풍월〉에 응모했음을 밝힌 바 있다.

경계쟈 본인은 혼낫 네조라 협읍에서 싱장호야 빠와 아는 것도 본ליך
업고 듯고 본 것도 별노 업셔 세월이 가는지 시티가 변호는지 국가가 무
엇인지 다만 입고 먹으면 수는 줄만 녘엿더니 여간 국문조이나 알기로 허
로 쪐녁에는 넘어 심심호여 폐국신문 혼 장을 어딕셔 버려다 본즉 데 삽
면에 기차라 문데흔 국문풍월 모집광고가 있기로 점즉함을 무름쓰고 우승
거리 삼아 변변치 못한 말을 괴록호여 보늬엿더니 요힐 방말에 춤예호야
상풍으로 신문 발송호심을 입수와 미일 겹견호온즉 격결호 언론과 은근
호 권고에 비록 용줄호 녘조나 엇지 감각함이 업스리요 그 시면에 가명학
이라 흄은 사름 사는 집에 늘마다 쓰이는 일이니 불가불 볼 것이요 외보
와 잡보는 방안에 안조서도 만리타국 일이며 전국늬 수경이 눈옵해 빠이
는 것갓고 론설 소설 괴셔 등은 악호 일을 징계하고 션호 일을 찬양호여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흘의 무암(암)을 흥미롭게 안이라 조국의 정신을 길너 이국호는 스상
을 발케 흠이요 기타 광고 등은 모든 일을 일조에 광포함이니 연호즉 신
문은 세계에 귀와 눈이라 흐여도 무방호도다⁴²⁾ (밑줄 강조-인용자)

인용문에 언급된 기자는 〈국문풍월〉 2회에 제시된 글제였다. 이때 당
선자 명단에 표준경이라는 이름은 없지만 평복 운산 거주자로 표츄향이
있는 것으로 보아 표츄향과 표준경은 동일 인물로 간주된다. 〈국문풍
월〉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지 『제국신문』은 국문풍월회를 만들기로 하
고 다음과 같은 사고를 낸다.

본사에서 국문을 사랑하시는 조미형례의 평일연구회신바를 발표하기
위해야 국문 풍월회를 열고 조미잇게 일일쇼창코조호야 그 결초를 좌에
괴록호오니 찬성호시는 동포는 오는 금요일너로 회비를 첨부호야 본사에
통지호시기 바라압
— 일주는 양력 오월 삼일(일요) (생략)⁴³⁾

국문풍월회를 개최하려는 목적 역시 “국문을 사랑”하고 “연구”하기 위
해서다. 회라는 보다 조직화된 모임을 결성함으로써 〈국문풍월〉과 같은
일시적이고 일회성에 그칠 수 있는 현상모집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
으로 시행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같은 시도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社告)

본사에서 국문 연구역으로 국문풍월회를 일초 기설코조호야 국문 □

42) 「고서」, 『제국신문』, 1908.3.24, 2면.

43) 「사고」, 『제국신문』, 1908.4.24, 2면.

랑호시는 청원의 찬성을 광구호온지 한일이 되도록 회비를 보니여 동경
을 표호는자 얼마되지 못호는고로 부득이 혀야 일즈를 다시 퇴명호오니
유지첨원은 좌괴호 고한 안으로 통지호시기 바라압
일, 회비 일원을 린금요일 너로 송교함
일, 회동일즈는 린일요일로 퇴명함
일, 기회처쇼는 삼청동 감□령으로 기령함⁴⁴⁾ (□는 판독되지 않는 글
자의 표시임-인용자)

유지한 회원들의 찬성을 여러 차례 청원했지만 이후 국문풍월회가 결성되었다든가 국문풍월과 관련한 모임이 조직되었다는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회비를 보니여 동경을 표호는 자”가 “얼마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사측의 기대만큼 독자들이 따라주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다만 국문풍월과 유사한 형태의 언문풍월 현상모집이 미주 한인들이 발행한 『신한민보』나 천도교를 중심으로 한 기관지 『천도교회월보』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 점으로 미루어 국문풍월과 같은 한글 시 짓기의 지속성은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제국신문』이 실시한 현상모집인 〈말모듬〉과 〈국문풍월〉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매체 언어인 한글을 최대한 활용하여 독자들에게 접근해 간 장치이다. 현상모집은 『제국신문』이 창간사에서 밝힌 한글 독자를 향한 의지의 실천인 동시에 한글 매체를 구독하는 독자들

44) 「사고」, 『제국신문』, 1908.5.2, 2면. 5월 8일 같은 사고가 한 번 더 실린 것으로 보아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을 견인하기 위한 전략 가운데 하나로 간주된다.

『제국신문』은 1898년 창간 당시 한글 독자를 위해 신문을 순국문으로 발행할 것을 분명히 천명했지만 100% 한글 전용을 실현할 수 없었다. 이러한 언어 현실에서 독자들의 흥미와 계몽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한 전략이 바로 현상모집이다. 이 때문에 『제국신문』이 실시한 현상모집인 〈말모듬〉과 〈국문풍월〉은 모두 한글을 적극 활용하도록 구성되었다.

〈말모듬〉의 경우 한글로 된 글자들을 배열하여 이에 맞는 재담이나 문장 표현을 맞히는 일종의 한글로 된 퀴즈이고, 〈국문풍월〉의 경우 글 제와 운자를 제시하고 여기에 맞도록 한글로 시를 짓는 한글 작시다. 이처럼 『제국신문』이 실시한 현상모집이 공통적으로 한글을 활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매체어로서의 한글의 가능성을 확인한 동시에 여기에 부응한 한글 독자층의 반응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다시 말해 현상모집은 『제국신문』이 당시 『대한매일신보』 국문판을 비롯한 다양한 한글 매체들과 경쟁하기 위해 고안한 독자 전략이자 순국문 사용이라는 매체 언어의 지향성을 보다 대중적으로 확장한 장치로 이해된다. 이 전략은 상당한 독자들의 호응과 참여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여성 독자 외에도 10대의 독자들을 유인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그럼에도 현상문제의 난이도나 현상문예의 작시 수준이 사측의 기대나 요구에 미치지 못했고 계속된 경영난으로 지속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독립신문』, 『황성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해조신문』, 『대한민보』, 『조선그리스도회보』, 『그리스도신보』, 『자선부인회잡지』, 『신한민보』, 『경남일보』, 『경향신문』, 『천도교회월보』 영인본
제국신문 미공개 자료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소장)
한국학진흥사업 성과포털
<http://waks.aks.ac.kr/rsh/?rshID=AKS-2011-EBZ-3103>

2. 논문과 단행본

강현조, 「근대초기 신문의 전래 서사 수용 및 변전 양상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51호, 2013, 229-278쪽.
구장률, 「『제국신문』의 <서사적 논설>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22호, 2004, 89-129쪽.
권두연, 「『제국신문』 잡보 ‘하위란’의 형식 실험과 수사적 전략」, 『현대문학의 연구』 63집, 2017, 195-243쪽.
김기란, 「근대계몽기 매체의 코드화 과정을 통한 여성인식의 개연화 과정 고찰」, 『여성문학연구』 26호, 2011, 47-62쪽.
김복순, 「『제국신문』의 힘—“여성의 감각”의 탄생」, 『민족문화사연구』 51호, 2013, 343-385쪽.
_____, 「『제국신문』 학문론의 실학적 변용과 학지의 타당성」, 『여성문학연구』 31호, 2014, 6-44쪽.
김복순 외, 『제국신문과 근대－매체, 담론, 감성』, 현실문화연구, 2014.
김영민, 『한국의 근대 신문과 근대소설』 1·2, 소명, 2006·2008.
김영민·구장률·이유미 편, 『근대계몽기 단행 서사문학 자료전집 상하』, 소명, 2003.
김영철, 「언문풍월의 장르적 특성과 창작양상」, 『한중인문학연구』 13집, 2004, 52-77쪽.
김영희, 「메국신문에 관한 일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7.
_____, 「이종일의 언론관과 메국신문의 성격에 관한 일고찰」, 『인석박유봉박사학 갑기념논총』, 전예원, 1999, 399-423쪽.
김윤선, 「『제국신문』에 나타난 미국 유학과 유학생 기서(편지) 연구」, 『어문연구』 38권 1호, 2010, 309-333쪽.

김정경, 「『제국신문』 독자투고에 나타난 사회인식」,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김현주, 「『제국신문』에 나타난 혼인제도와 근대적 파트너십」, 『한국근대문학연구』 23호, 2011, 123-160쪽.

박슬기, 「근대시의 인식과 언문풍월」, 『한국시가연구』 38집, 2015, 49-71쪽.

박은경, 「한국 최초의 작곡가 김인식 연구」, 『음악과 민족』 19호, 2000, 11-37쪽.

배정상, 「『제국신문』 소재 이해조 소설 연구」, 『동양학』 49집, 2011, 131-150쪽.

설성경 · 김현양, 「19에서말-20세기초 『제국신문』의 <론설> 연구」, 『연민학지』 8집, 2000, 223-253쪽.

이경하, 「『제국신문』 여성독자투고에 나타난 근대계몽담론」, 『한국고전여성문학 연구』 8권, 2007, 67-98쪽.

이규호, 「황산 이종린 편 『언문풍월』 연구」, 『인문과학연구』 33집, 2009, 55-88쪽.

이대형, 「『제국신문』 소재 정운복의 논설 연구」, 『대중서사연구』 31호, 2014, 207-238쪽.

이방원, 「한말 여성자선단체 ‘자선부인회’ 연구」, 『이화사학연구』 50집, 2015, 267-305쪽.

이복규, 「훈민정음 · 한글 · 국문 · 한국어(국어) 이들의 혼동 문제에 대하여」, 『동방학』 12집, 2006, 155-189쪽.

이성혜, 「密亞子 劉元杓에 대한 傳奇的 고찰」, 『동북아문화연구』 33집, 2012, 169-184쪽.

이연경, 「한성부의 ‘작은 일본’, 진고개 혹은 本町」, 시공문화사, 2015.

임상석, 「20세기 국한문체의 형성과정」, 지식산업사, 2008.

임형택 외, 『흔들리는 언어들』, 성균관대대동문화연구원, 2008.

장영숙, 「대한제국기 일반 독자층의 『제국신문』 광고게재와 사회상의 일면」, 『중앙사론』 35집, 2012, 323-359쪽.

전은경, 「근대계몽기 문학과 독자의 발견」, 역락, 2009.

진갑곤, 「언문풍월에 대한 연구」, 『문학과 언어』 13집, 1992, 251-270쪽.

최기숙, 「번역과 전파, 장르와 매체의 변화—전통과 근대의 “부정교합”, 표류하는 서사의 근대성」, 『古小說 研究』 37호, 2014, 49-89쪽.

최기영, 「『제국신문』 연구」,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1989.

최현식, 「『대한매일신보』의 이중판본 정책과 근대어의 형성」, 『현대문학의 연구』 35집, 2008, 445-481쪽.

한기형, 「근대어의 형성과 매체의 언어전략」, 『역사비평』 71호, 2005, 356-377쪽.

한기형 외, 『근대어·근대매체·근대문학』, 성균관대출판부, 2006.

홍신선, 『국문풍월에 대하여』, 『기전어문학』 3집, 1988, 183-188쪽.

홍인숙, 『근대계몽기 여성 글쓰기의 양상과 '여성주체'의 형성 과정』, 『한국고전연구』 14집, 2006, 103-130쪽.

홍종선, 『근대 전환기 개화 지식인의 '국문/언문'에 대한 인식과 구어체 글의 형성』, 『우리어문연구』 54집, 2016, 589-620쪽.

Abstract

A Study on the Use of Hangeul in *Jeguksinmun* and Reader Strategy — Focusing on Unpublished Data and Contests

Kwon, Du-Yeon(Hansei University)

Jeguksinmun distinguished itself by succeeding in publishing only in the Korean language starting with its first edition and carried out various strategies for Hangeul (Korean language) readers: the prize contest was one of them. This study focused on the prize contest in order to examine *Jeguksinmun's* use of Hangeul and strategies for its readers, since the contest provides a useful perspective for a study on media. The prize contest was different from readers' contributions, in that both the company's position and readers' responses can be understood through it.

The prize contests held by *Jeguksinmun* were divided into 〈Malmodeum〉 and 〈Gukmunpungwol〉. The former was a kind of quiz in which Hangeul words were suggested as questions and players solved them, while the latter was a contest of writing in which participants created poems in Hangeul. Such contests were widely held in 1907 and 1908 and are found to have commonly used Hangeul. Response to the prize contests was considerable, and the participants were mostly comprised of teenagers and female readers. It is demonstrated that the contests effectively attracted young male readers in their teens who spoke Hangeul.

Thus, the prize contests was measures for *Jeguksinmun* to extend its directivity of media, use pure Korean alphabet toward the masses, practice of language toward readers. In addition, that was one of the strategies designed to compete with a variety of Hangeul media, including the Korean language version of *Daehan Maeil Shinbo*. The contest not only enhanced the readers' understanding of the Korean language, but also induced their active participation. However, it could not be sustained, as the difficulty of questions and the level of verse writing could not satisfy the expectations or needs of the company and financial difficulties did not cease.

(Keywords: *Jeguksinmun*, Hangeul, Korean alphabet, reader, contests, Malmodeum,

Gukmunpungwol, Media language)

논문투고일 : 2018년 7월 14일

심사완료일 : 2018년 7월 29일

수정완료일 : 2018년 8월 8일

제재화정일 : 2018년 8월 13일